

# 전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하얀 전쟁」을 중심으로—

이 경\*

목 차

1. 제3의 전쟁소설론	(2) 연대성의 발견
2. 부정의 논리—전쟁과 일상	1) 역설적 휴머니즘
3. 긍정으로의 회귀	2) 동일시로의 전화
(1) 거리의 미학	3) 비인격적 존재와의 연대
1) 과거 : 현재	4. 마무리
2) 주인공 : 부인물	
3) 중심 사건 : 에피소드	

「하얀 전쟁」—그러나 하얀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전쟁은 백지 답안지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전쟁의 색깔을 거부하는 관점에 대한 긍정으로 귀결한다. 통념상, 전쟁은 하얗지 않다. 붉거나 검다. 피와 아우성, 죽음이 만연해 있는 아비규환이다. 이러한 전쟁의 통념을 거부한 데에 「하얀 전쟁」이 있다.

여기서 전쟁은 일상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의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편적 인간조건인 차원으로 옮겨 놓으려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한다는 것이다. 하얀 전쟁이란 제목은 바로 이런 작가의 태도의 반영이다.

작가는 백지담안지라는 단어를 대리전쟁, 전쟁의 거부, 선입견 없는 태도 등의 메타포로 사용한다. 상식적인 전쟁반대론의 차원을 넘어서 전쟁과 삶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다. 말하자면 삶의 가치를 앗아간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으로, 전쟁없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 있다. 전쟁과 함께, 삶의 본질, 그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얀 전쟁」<sup>1)</sup>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장 한장씩 교체되면서 이루어지는 서술의 각 장은 일상과 전쟁 상황을 차례로 묘사한다. 전쟁과 일상은 소설의 중요한 두 축이 되며, 주인공 한기주는 자신이 참전한 과거의 월남전과 현재의 일상을 서술하는 서술자이다. 전쟁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나, 이러한 구분은 형식상의 문제일 뿐이다. 주인공의 삶의 역정에 있어서 전쟁이 그다지 큰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 자체의 중량으로 인한 절망, 희망이 교차되는 것이며 그 절망 중의 하나가 전쟁이라는 설정일 뿐이다.

## 1. 제3의 전쟁소설론

전쟁은 극한체험이다. 인간의 의미를 회의하게 만드는 한계상황이다.

또한 전쟁은 단절되어 있는 경험이 아니라 전쟁의 전후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사의 한, 과정이다. 『전쟁소설』과 『전후소설』로 나누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그 전후의 연결고리에 중점을 두고 『하얀 전쟁』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전투현장만을 기록한 소설을 제외하고는 대개 소설에서는 그 두 가지 배경이 다같이 서술된다. 이 두 배경을 전쟁과 일상이라는 용어로 한정하면, 전쟁이라는 한계상황을 그리고 있는 문학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된다. 인간

1) 여기서는 안정효, 하얀 전쟁·제1부 전쟁과 도시, 고려원, 1992(초판, 제33쇄)를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의 인용문 말미에 기재된 숫자는 이 텍스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쟁을 일상보다 크게 보는 경우와 작게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유형은 전쟁의 악몽에 일상이 잠식되는 경우로서, 일상적 삶은 없고 전쟁의 피해만 존재한다—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현재 진행중이든간에. 전쟁은 공포, 불안, 부조리, 죽음, 악 등의 이미지로 그 내포가 결정되며 전쟁을 도발한 어느 한쪽에 대한 공격으로 수렴된다. 그 이유가 이념이든 이권이든, 대립되는 두 진영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시선은 대개 공정하지 않다.<sup>2)</sup>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전쟁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대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진영을 공격하고, 그 한 편 때문에 겪는 피해와 비참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전쟁 소설이 이에 해당된다. 일종의 고발소설이라 할 이 유형은, 전쟁의 비참상을 드러내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첫째, 전쟁은 어느 한 편의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단세포적 인식과, 둘째, 전쟁과 일상은 그렇게 명쾌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전쟁의 원인은 일상 속에 이미 박혀 있으며, 일상은 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편적이며 과장된 인식 또한 결합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과장된 표현으로 전

2) 이런 지적은 6.25전쟁에 관한 언급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민주주의는 선, 공산주의는 비순수이고 민주주의는 순수라는 식의 도식적인 결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전혜자, 『戰時文學』과 작가 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98면)

「북쪽의 악과 남쪽의 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 자유주의 휴머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은 회의로부터의 환멸, 피칠갑을 하고 있는 잔인한 가해자와 순박하고 인정어린 피해자로 양분된다.」(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51면)

물론, 6.25와 월남전은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우리의 전쟁이고, 후자는 흔히 말하는 대리전쟁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내부의 필연성에만 있지 않다는 것과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강요하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확립」(전혜자, 앞의 글, 86)이라는 전쟁의 기능등을 참조할 때,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쟁을 잔혹의 이미지로 고착시킨 점이 오히려 전쟁의 리얼리티에서 멀어진 결과가 되었다.<sup>3)</sup> 전쟁의 비참함을 너무 충실히 묘사하려다가, 도리어 전쟁의 실체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래도 인간은 살고’ 일상 속에서도 전쟁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다층적 현실을 묘파해내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일상에 의한 전쟁의 잠식이다. 여기서는 전쟁을 일상적 삶의 연속으로 본다. 염상섭의 「취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도 일상세계는 변화가 별로 없다고 보는 데에 이 유형의 특이성이 있다. 길 이쪽에서 저 쪽의 소낙비를 바라보는 것 정도로 전쟁을 본다. 전쟁중에도 청춘은 연애를 하고, 여자들은 박가분을 바르고 물방울 무늬 옷을 유행시킨다. 즉 전쟁은 약간의 ‘얼룩’ 정도를 남기고 과거로 사라질 뿐, 일상은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이어서 소낙비의 메타포로 충분하다는 것이 작가의 판단이다.<sup>4)</sup>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일회적인 자연현상으로서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도 계속되는 일상의 무게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탁월한 인식을 보여주나, 이 경우 쉽게 발견되는 맹점은 역사성의 결여

3) 김윤식은 한설아의 작품을 투쟁일변도, 혁명적 낙관주의의 산물로 파악하고 이는 그의 작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문학의 기능적 범주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김윤식, 우리근대문학사의 연속성에 대하여—「취우」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회, 앞의 책, 27면 참조.

이런 평가는 고발적 성격이 강한 전쟁소설 일반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된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피해의식을 과장하여 서술하고 죽음과 삶의 고통, 폐허와 의무, 자학과 가학, 배고픔과 공포 등이 작품의 소재가 될 때 현실 반영이나 고발적 성격을 넘어서기 어렵다. 소재주의적 필연이다.」(김승환, 앞의 글, 32—33면)

「아직도 한국소설은 이범선의 오발탄에서의 가자 가자의 피맺힌 절규와, 채머리를 흔들면서 일생동안 통일을 염원하는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여인숙집 노파의 물라물라의 회의와, 6.25의 사회 역사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 한 홍성원의 남과 북의 결말에서의 아나야 아나이라는 강한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김승환, 신범순, 위음, 앞의 책, 342면)

4) 김윤식, 앞의 글, 17면.

이다. 역사적 사건이 작중인물의 운명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이야말로 투카치적인 의미에서 자연주의적 특징이라 규정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비극이라든가 역사발전의 변증법이 끼어들 틈은 없다.<sup>5)</sup> 역사적 원인의 결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을 배제한 자연현상으로서의 전쟁이다. 소낙비처럼 스쳐 지나가버리는 전쟁 말이다.

『하얀 전쟁』의 경우, 제 1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주인공의 부하였던 변진수의 삶이다. 그는 전쟁을 고발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다. 과거의 전쟁, ‘그 끝없는 형벌, 고통과 악령의 추적’ 때문에 현재가 완전히 잠식되어버린 경우이다.

과거는 현재를 파먹고 덮어버리는 침전물이다. 그래서 과거에 겪은 전쟁은 현재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23)

제 2유형의 예는 월남인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우린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따위에는 이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베트남들에게 짓눌려 살면 어떻습니까?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가게 해 주세요.(76)

여자가 살며시 옆으로 퍼놓은 아오자이 뒷자락을 깔고 앉아 야자수 밑에서 사랑을 하던 월남 청년. 그들은 전쟁에서 유예된 젊은이들일까?(207)

사방에서 전투가 벌어져도 월남인들은 낮잠을 거르지 않았다.(123)

월남인들은 전쟁의 포화에 극도로 무관심하며 자신들의 낮잠과 마약을 중단하려 하지 않는다. 전쟁 자체가 일상이 되고, 일상에 흡수된 전쟁은 그들의 삶에 하나의 얼룩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안정효는 이런 유형으로만 전쟁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안정효의 『하얀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여기에 제 3유형을 첨가해야 한다.

셋째 유형에서는 전쟁과 일상이 동일한 무게로 드러난다. 여기서의 전쟁은 고발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이룬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은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 툭 튀어나온

5) 김윤식, 앞의 글, 32면.

단절된 조각이 아니라, 그 전후사와 연결되어 있는 연쇄의 한 고리이다.

그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이 유형에는 전쟁은 인간성을 매몰시키는 엄청난 비극이며, 그 비극 속에서는 모든 청춘과 사랑이 죽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꽃들이 잎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식의 이원론적 단순성이 없다. 전쟁 속에는 비극이 있고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있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크든 작든 전쟁의 서술에 있어 과장된 굴절이 없다. 오히려 전쟁이 죽음과의 투쟁이라면 일상은 살기 위한 전투라고 보는 입장이다.<sup>6)</sup> 쉽게 말하면 전쟁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웃음과 항구적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소설로서의 목적의식보다는 인생과 인간통찰이라는 명분에 충실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전쟁전이든 전쟁중이든 전후이든간에 인간에게는 투쟁의 순간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권태가 뒤엉켜 있는 것이다. 전쟁에는 전쟁의 부조리, 전쟁의 권태, 전쟁의 사랑, 전쟁의 낭만이 있듯이, 일상에는 일상의 부조리, 일상의 권태, 일상의 허무, 일상의 사랑이 있다.

전쟁은 일상에, 일상은 전쟁에 등가된다. 고통과 행복의 질량은 불변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인생은 고독하고 인간은 왜소하고 비루하며 삶은 너무 많은 무게를 우리에게 짐지운 채로 흘러가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전쟁의 혹은 생의 리얼리티로 규정한다. 바로 이 점이 위의 두 유형과 구별되는 점이다.

『하얀 전쟁』은 전쟁소설이지만, 어디까지나 생의 기록이다. 전쟁 역시 인

6)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서는 극히 부분적이거나 전쟁과 일상의 세계를 연결시키려는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기훈에 의해 시장과 전장은 비로소 의미상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소모라는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장이 인간이 소모되는 곳이라면 시장은 상품이 소모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전장과 시장은 소모성의 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114면)

전쟁과 일상을 연장선상에 놓고 보는 이런 태도는 서술 대상이 되는 전쟁이 월남전이기에 가능한 시각일런지도 모른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므로 감정적 거리보다는 객관적 거리 획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간사의 한 과정으로 다루어지므로 전쟁과 일상—어느 측면에도 소홀하지 않다.

## 2. 부정의 논리—전쟁과 일상

주인공은 전쟁과 일상—어디에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일상에 절망하여 전쟁터로 자원했으나, 전쟁터에서는 삶을 찾아 일상에 회귀한다. 그러나 곧장 일상의 건조함과 권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제 비극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일어나는 법 없다는 답답한 일상성이 그들 앞에 가로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무한한 권태와 아울러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sup>7)</sup>

어쨌든 내 삶은 낭비의 계속이었다. 월남전도, 결혼 생활도, 기자 생활도, 환멸과 수치로 끝난 모험.(217)

주인공은 전쟁중과 조금도 다른없는 질량불변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일상은 다같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으로 취급된다. 전쟁도 분명히 인간사의 사건인 바, 이런 시각은 삶의 리얼리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으로 나타난다.

전쟁과 일상—두 차원의 무게가 같아진 데는 다음의 토대가 있다. 두 세계는 동일한 인간관, 세계관에 맥을 대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인간적 의미의 상실이다. 인간의 의미는 불확정적이다.

인간은 해체, 재조립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인간의 의미는 불확정성의 논리에 지배된다.

‘나’라는 주체는 어디로 갔을까? … 인간의 육체는 7년이면 세포 환로도 남기지 않고 뭉땅 새로 바뀐다. 그러면 7년 전의 나는 지금 내가 만져볼 수 있는 이 ‘나’가 아니었겠지. 뭉땅 통째로 바뀐 나, 그것도 나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147)

만일 빛보다 빨리 음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현재에서 미

7) 천이두, 분단현실과 한국문학, 김승환 신범순 엮음, 앞의 책, 196면.

래로부터 과거를 간섭하게 되리라. 과거는 지금의 공간 속에서 고정되고, 그러면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수정해가며 살아가게 될까? 그러면 역사는 미확정의 상태로 존재하리라.(212)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로서의 확신이 없다. 언제 흔들리고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의 구성원일 뿐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 보일 수 있는 불확정성의 존재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의 해체 합성 조립을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의 일부는 실행되고 있기에 이르렀다. 생명은 신성 불가침의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구성이 가능한 물질의 합성으로 격하되었을 뿐이다. 주인공은 정자를 눈으로 확인한 데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적 근거를 발견한다.

현미경 속의 태고적 풍경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나도 저런 벌레였다니. 저것들이 인간이 되어 헤겔을 토론하고, 사랑과 번뇌에 애꿎은 밤을 지새우고, 전쟁을 일으켜 무더기 살인의 축제를 벌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가을 밤 노란 달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리라... 저 벌레들은 왜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는가? 인간의 방향은 단백질의 늪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일까? (151)

따지고 보면 이제는 생명 창조도 과학적인 생산에 불과하다. 디옥시리보핵산의 구조 암호를 해독하여 재구성하고, 뇌파를 조절해서 지능지수를 증가시켜 천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147)

생명이 신비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때라야 그것을 버리거나 없애는 데에는 죄의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그것이 해체, 재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때는 달라진다. 인간의 죽음은 어떤 합성물들의 죽음이 되어 버리므로, 죽음 역시 생명처럼 해체, 재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합성물들의 대량 상실, 그 합성물의 가능성이나 인간적 가치보다는 상업성을 중시하는 회사, 그 합성물의 간통 역시 별 비중없는 죄의식으로 정지되고 만다. 그리하여 생명을 파괴한 증거물인 죽은 죄의 귀가 훈장을 타기 위한 영수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주인이 못되는 사건의 진행이라는 점에서 양 세계는 동일하다. 전쟁에서나 일상에서나 주인공은 자기를 조종하는 누군가의 실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라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자신을 도마에 올려 놓은 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회사, 가정으로 도마의 내포가 달라질 뿐, 세계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자의 게임판이고, 나는 바둑알의 운명을 타고 났을 뿐이라는 인식이다. 그 내려다 보는 자는 운명이거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군대나 회사의 상사가 되기도 한다.

전쟁은 주인공들이 달라질 뿐 내용은 항상 똑같은 연극이다. 연출자는 뒤로 물러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무대 위에서는 의식조차 없는 꼭둑각시들이 무언극을 벌인다.(206)

내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일까?… 변진수와 회사와 아내, 내 주변의 세계는 어떤 설정된 계획에 의해서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는 중일까? (239)

셋째, 무한과 대조되는 유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유한한 인간사와 무한한 자연은 무관하다. 인간의 절망, 죽음, 불안과는 관계없이 달은 웃고, 태양은 빛난다. 나의 죽음은 나 혼자만의 고독한 사건일 뿐이지, 세계는 이상 무이다. 내가 찾던 시계는 계속 돌아가며 어제의 창녀는 여전히 몸을 팔게 되어 있다. 세계는 달, 부처, 태양처럼 나에게서 멀리 있다. 바로 그 유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쟁과 일상은 상통한다.

우리들이 아무리 허우적거리려도 전쟁의 양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물고기 몇 마리가 바다를 바꿔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의 피와 목숨이 사라져 무엇이 달라지겠는가.(209)

저 검고 깊은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신비가 숨어서 인간의 두뇌를 웃고 있을까?… 이 광대한 신비 속에서 티끌같은 인간은 티끌같은 땅에서 티끌같은 관념과 이념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질투하고, 자살하고, 웃고, 울고…(212, 213)

검고 깊은 우주의 신비와 불가사의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이란 우주의 박테리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박테리아의 월급, 이념, 전쟁, 질투, 죽음 등은 지극히 미미한 일이다. 인간의 운명은 아메바, 달팽이, 벌레들과 다를 바 없는 티끌인 것이다.

이렇듯 세계는 나에게서 멀리 있다. 바로 그 거리로서 나는 전쟁과 인간사회를 본다. 가까이서 보면 저마다 다 다르고 나름대로 심각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좌절이 그 거리에서 보면 모두 다 똑같다. 운명은 '이썬시개를 물고 느긋하게' 쫓겨다니는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넷째, 모순된 세계 속의 작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전쟁과 일상은 일치한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삶과 짝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다.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해 죽는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양식 자체에 절망한다. 인간이 몇 초 사이에 갑자기 존재를 멈추므로 죽는 것은 우습고 따라서 그 연장선인 사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다.<sup>8)</sup> 예고 없고 어처구니 없고 분별력 없는 죽음 자체가 반대급부적으로 삶의 무의미를 시사한다.

죽는 것도 우습고, 사는 것도 우스웠다.(61)  
죽음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역설이 떠올랐다. 인간에게는 삶조차도 없는지 모른다. 어떻게 인간이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을까? (259)

이런 모순구조 속에서 전쟁은 동일한 모순을 반복한다.

전쟁이란 본디 비논리적인 인간 행위니까... 그리고 인간은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서, 본능적인 생존이 아니라 밟다고도 살인을 하고, 기요틴을 만들어 내고, 도끼로 목을 자르고, 아편의 기운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며 달밤에 살인의 축제를 벌이고...(175)

직접 싸운 자만이 전쟁을 안다. 그 무의미한 음향과 분노를.(111)

삶의 의미에 대한 이런 인식으로 인해, 그 부조리한 규모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일상의 모순, 즉 용감, 비겁, 정의, 선, 악, 부조리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예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서 전사보다 사고사가 많다는 아이러니  
전우 채무겸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죽임  
비무장지대=무장이 지극히 잘된 지대  
(진짜) 전투원=(가짜) 전쟁 영화의 엑스트라

8) 손창섭의 소설에서도 이런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손창섭의 거의 모든 중요한 대목에서 부단히 환기되는 것은 '우연히 살아 있는 인간'이란 명제이다.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은 실로 '우연'이며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련없는 운명의 회동일 뿐이다. 따라서 손창섭의 절망은 산다는 것의 무의미와 절망에서 비롯된다.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김승환 신병순 엮음, 앞의 책, 136면).

비극=어처구니 없는 희극  
 용감한 자=비겁한자  
 내 나라에서 나=타향사람  
 결혼, 사랑=번식을 위한 예식  
 내가 꿈꾸었던 사랑=아내의 외박  
 진실=거짓

전쟁과 일상, 결혼과 이혼, 죽음이든 삶이든간에, 그 본질은 농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은 무의미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다. ‘내 삶은 무엇인지 크게 고장난 삶’으로 느껴진다. 전쟁, 실직, 결혼과 이혼이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허무의 저울로 달기 때문이다. 전쟁의 대량 학살이나 아내의 간통, 회사에서의 불이익 등은 세계내 모순의 일부일 뿐, 아무런 사건이 되지 못하다. 모순이 모순으로 불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순이 속해 있는 세계의 바른 위상이 전제된다. 그러나 세계 자체의 존립 원리가 모순인 판에, 모순된 세계 속의 모순은 그 질량의 상대적 무게가 문제될 뿐 당연한 결과일 따름이다.

다섯째, 무의미한 반복과 전망의 부재를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주인공은 히치코크의 영화 『39계단』에서 자신이 봉착해 있는 생의 무의미를 발견한다. 기억력 선생이라는 주인공은 비상한 기억력을 생계수단으로 삼는다.

히치코크가 만든 영화 39계단을 보다가 나는 술집에서 기억력을 팔아 밥벌이를 하는 ‘기억력 선생 Mr. Memory’이 어찌면 나 자신의 회화일지도 모른다고 소름이 끼쳤다. 손님들이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 몬트리올에서 위니페그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느니, 어느 경마대회에서 어느 말이 우승했다느니 따위의 지식을 전시하며 지능지수로 밥벌이를 하던 노인이 나에게 던져 주었던 전용.(186)

생이 있고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생이고 기억을 위한 기억인 것이다. 가치가 전도되어, 생은 무의미한 기억만도 못하거나 그에 등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전쟁과 일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인공은 월남전을 엄청난 물량문화와 원시적 문화의 싸움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승리나 패배나 하는 것은 우스운 개념이 된다. 이러한 시각은 물량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월남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벼룩들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길이 4인치인 특수 소형 대포를 만들어 적을 섬멸했다고 한다. 「하얀 전쟁」은 벼룩과의 전쟁이나 그외 모든 인간 전쟁을 동일시한다.

앞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제 3차대전이나, 호메이니 영감님의 좌충우돌 전쟁이나, 포클랜드에서 벌어진 낱아빠진 영광의 전쟁이나, 히틀러의 나르시시즘 전쟁이 과연 크리스티나 여왕이 벼룩과 벌인 전쟁보다 얼마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위한 투쟁일까? (221)

대학과 결혼의 선택 모두 아이러니하다.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지능을 파괴하기 위하여 문학을 선택하며, 사랑보다도 자신의 뇌세포의 비밀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 여인과 결혼하며, 직업 선택, 월남 파병도 모두 그런 식이다. 다른 개인에게는 항목 하나하나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두 동일한 질량, 질량 불변의 하찮은 것일 뿐이다.

전쟁 전이든 전쟁중이든 전쟁후든, 주인공에게 있어 삶은 반복으로만 읽혀진다.

내 삶에서는 더이상 감격이나 혁명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인정했던 터라...(7)

싸움을 한차례 치르었어도 그들은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푸시시한 현실에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매음을 하고, 살아야 한다.(128)

생은 한없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무의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의 반복이다. 희망,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 진보, 혁명은 부재한다. 전쟁터로부터의 귀국 역시 마찬가지다. 전쟁이 끝난 후의 행복한 귀향, 전쟁의 상처에 끊임없이 파먹히는 삶, 그 어느 곳도 아닌 지점에 주인공은 던져져 있다.

이 곳 전쟁터에서 또 다시 탈출해 구원의 땅을 찾아가도 모래와 돌맹이 뿐인 불모지만 나타날 것 같아 두려웠다.(304)

전쟁은 귀국으로, 회사 생활은 사퇴로, 아내와는 이혼으로 결말지워진다. 이 모든 결말에서 공통점은 반복의 범칙만 뚜렷할 뿐,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와는 달리 주인공은 운동네 잔치 속으로 귀향하지 않는다. 그는 망각된 짐승, 죄수, 후천성 원시인으로 지옥에 등록된

자의 불안으로 가득차 있다. 흔히 영웅, 개선장군, 군가와 제복과 행진 등으로 의식화되는 전후의 이미지는 부정된다. 그것은 전쟁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 진다.

아내와의 이혼에 파국의 원인이 없듯이, 계기도, 전환점도, 기승전결도 없으므로 전망의 가능성은 당연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얀 전쟁』에서 드러나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은 이런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전쟁 소설 하면 흔히 생각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전쟁의 비참상 고발, 그 비극을 탄생시킨 적들에 대한 증오, 죽고 죽이는 데서 느끼는 신의 부재와 삶의 무의미 또 허무, 그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휴머니즘의 꽃 정도이다. 이는 1장에서 말한 첫번째 차원에서 나오는 관심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얀 전쟁』은 전쟁의 고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야만성에 등가되는 일상의 고발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 3. 긍정으로의 회귀

전쟁과 일상—두 세계를 관류하는 것은 고독, 부조리, 무의미다. 허무의 잣대로 세계와 인간을 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데 안정효 소설의 특이성이 있다. 부정과 긍정의 긴장이 작품의 축을 이룬다. 환상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의 인식에서 오는 허무로 인해 도리어 더 큰 사랑에 도달한 것이다. 이 점은 소설의 기법과 내용 모두에서 나타난다.

#### (1) 거리의 미학

먼저 기법적인 것부터 살펴 보자. 이는 시간관, 작중인물들끼리의 관계, 사건들끼리의 관계로 세분되는데, 작가는 이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일한 서사적 거리를 유지한다.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중심 사건에 애정을 집결시키는 태도는 부인물, 에피소드에 대한 폄하로 기울기 쉽다. 부인물, 에피소드는 주인공, 중심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물, 사건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수렴되는 작품 구조와는 달리, 『하얀 전쟁』은 주인공과 부인물, 중심 사건과 부사건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 중심 사건, 부사건이 따로 없으며 대개 에피소드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가의 시선은 그 에피소드 각각에 대하여 공평한 거리를 유지한다. 생의 편린을 드러내 준다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고, 바로 여기서 작가의 휴머니즘을 읽을 수 있다.

### 1) 과거 : 현재

『하얀 전쟁』은 전쟁과 일상이라는 두 가지 상황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상으로, 그것은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일상의 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과거의 전쟁이든 현재의 일상이든 동일한 시제-생생한 현재 혹은 과거로 서술된다. 현재와 과거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과연 삶의 한 토막을 잘라버리고, 푹푹 찌는 정글 속에서의 일년을 지워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삶을 다시 이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 (58)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일직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전쟁과 일상, 두 현실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편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과거는 불리한 과거라 하더라도 편리하게 사라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휘장 속으로 노병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속에, 혹은 의식 속에 적층되어 있다는 시간관이다.<sup>9)</sup>

### 2) 주인공 : 부인물

작품에서 주인공과 부인물은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 주인공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타 인물들이 도구화되는 설정은 없다. 각자는 각 인생의 주인일

9) 조남현은 이를 일종의 리얼리즘으로 해석한다.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과거와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작중인물의 현재 못지않게 또 때로는 현재보다도 과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조남현, 앞의 글)

뿐이다.

이는 주인공의 삶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폭넓게 제시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변진수, 한기주, 아내, 하이, 그외 전우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한기주는 서술자이고, 그의 눈에 비친 작중인물들을 주인공으로 각 사건을 묘사한다. 엄밀히 말해 하얀 전쟁은 장편소설이라기보다는 단편의 중첩에 가깝고, 주요인물인 한기주와 변진수도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하기 힘들다. 한기주는 전투행위에 참가도 하고 살해도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의 주변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을 기록하는 화자의 그것이다. 화자는 작중인물에 대해 거의 예외없이 그들의 과거, 소박한 생활, 미래에의 꿈, 그리고 피팍스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실감있게 들려준 다음 한 사람씩 전 사자로 소설 밖으로 퇴장시킨다.<sup>10)</sup>

### 3) 중심 사건 : 에피소드

주인공 편향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는 사건의 분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총 22장 중 1, 3, 5, 7, 9, 12, 14, 16, 18, 20, 22장은 일상을 다루고, 2, 4, 6, 8, 10, 11, 13, 15, 17, 19, 21장은 전쟁을 다루는데 중심 사건, 에피소드가 따로 없다. 모든 사건이 생의 에피소드로서 평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거리의 요술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건은 에피소드가 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사랑, 인생, 이루려는 목적은 크지만, 거리의 요술경으로 볼 때는 다 똑같다.

주관과 객관의 이러한 거리는 고독을 낳는다. 그러나 이런 고독을 똑바로 응시할 때 그 고독은 바로 사랑과 연결된다.<sup>11)</sup> 나 혼자만 그런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연대성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10) 송승철, 베트남 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참작과 비평, 여름, 1993, 86면

11) 전광용의 작품을 설명한 다음의 예문은 『하얀 전쟁』의 설명에도 유용하다.

「그는 역사나 사회를 통해서 개인과 그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 대신 개인과 그 삶을 통해서 역사나 시대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조남현, 앞의 글, 233면)

개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연대성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역사성 결여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2) 연대성의 발견

이는 내용적인 측면이다.

이 때 휴머니즘의 특징은 대상과 나의 동일시다. 시혜의 휴머니즘이 아니라, 대상에서 나를 발견하므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이다.

안정효의 휴머니즘은 아군, 적군의 구별 자체를 필요없게 만드는 지점에 있다. 그런 구별 이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이는 타인의 마음에 들어앉아 있거나, 모두가 고만고만해 보일 정도로 먼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 개인의 인생사에 대한 근시안적 배려에 의해서,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해가능하다는 원시안적 배려에 의해서 성립되는 휴머니즘이다.

### 1) 역설적 휴머니즘

휴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명에의 존중이다. 그러나 『하얀 전쟁』의 경우, 휴머니즘은 생명을 버리는 데서, 또 죽이는 데서도 손상되지 않는다. 이 때의 휴머니즘은 자기 희생의 이타정신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닌다.<sup>12)</sup> 피난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여동생을 버리는 장면에서도, 그 반인간주의적 문맥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휴머니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sup>13)</sup>

12) 아래 인용문 역시 자기희생의 이타정신과는 거리가 있지만,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 혹은 인간이해에 포함될 수 있는 진술이라 생각된다.

일행이 굶주린 배를 채운 뒤에 비로소 그 동료들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한 호메로스의 서술이야말로 감상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진실을 바르게 파악한 모범적 실례라고 헉슬리는 찬양했던 것이다.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김승환·신범순 엮음, 앞의 책, 302면)

13) 전광용의 『동혈인간』에서도 이와 같은 모티브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리고 이미 제목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동혈인간』에서는 피난길에서 위의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병든 갓난 아이를 버리고 가는 어머니를 비정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조남현, 앞의 글, 234면)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서술자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광용은 아이를 버린 윤리에 집착한 데 비해서, 안정효의 경우는 생존과 윤리를 동일시한 결과라 보여진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 아이씩 업고 간다고 해도 한 아이가 남았다. 그래서 한 아이를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기자를. 기정미와 연년생이어서 젓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라고들 했으나 어쨌든 눈이 사시였으며, 또 평균치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아들을 건지고 딸을 희생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기자가 버림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버리고 가야 할 이부자리를 얼어붙은 발에다 두툼하게 깔고, 기자를 부처님처럼 똑바로 그 위에 앉히고, 또 이불 두 겹을 어깨와 머리에 둘러 씌워 주고, 손에는 깨를 섞은 주먹밥을 쥐어 주고, 나중에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주먹밥 몇개를 나란히 무릎 앞 요 위에다 늘어 놓고, 무척이나 울던 어머니와 함께 우리들은 다시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그때 나이가 네 살이었던 기자는 울지도 않았고, 조그만 손에 주먹밥을 쥔 채로, 영문을 몰라 멍한 얼굴로,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우리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38)

6.25전쟁의 피난길에 주인공의 가족들은 모두의 삶을 위해 기동력이 없는 어린 식구 한 명을 버린다. 애정의 정도에 따라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아이나 노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존에 최선의 선택이었다. 결국은 다시 데려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자를 버리고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어느 쪽으로라도 작중인물들의 휴머니즘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의무의 최대한이기 때문에 버리고 가더라도 가족들의 연대감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더불어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기억의 내용 그 자체가 이미 기자에 대한 성실성의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변진수를 죽이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부하를 죽이지만, 버리지만 그 기저에는 사랑이 깔려 있으며, 그런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인물들에 대하여 이해와 긍정을 보내고 있다. 이는 ‘유일한 보시행위’<sup>14)</sup>로 설명되기도 한다.

나는 다시 변진수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오늘밤에는 의정부의 어느 하숙집에 들어가 숙박부에 가명을 적고 술에다 약을 타서 먹고는 억지로 잠을 자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모레는? ... 왜 그는 이 엄청난 도주를, 힘겹고 끝없는 형벌을 끝내지 못하는가? 이미 실탄이 장진된 권총을 꺼내 차가운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그러면 비록 생물체로서는 존재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고통과 악령의 추적은 당장 끝날 텐

14) 송승철, 앞의 글, 88면

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운데, 스스로 죽지도 못하니... 그렇다, 아마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집행인일는지도 모른다.  
돌아선 그의 표정이 눈부시게 밝았다. 그는 내가 왜 불렀는지를 알고 있  
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330, 331)

## 2) 동일시로의 전화

전쟁 소설에서 휴머니즘의 대상은 주로 피난민, 간난 아이 등이다. 적군에  
대한 예는 그리 흔치 않다. 김동리의 『홍남철수』나 선우휘의 『단독강화』에서  
볼 수 있는 극히 낭만적인 몇몇 실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다.

『하얀 전쟁』의 작중인물들은 적을 대립되는 존재, 죽여 없애야만 하는 단  
순한 관계로 보지 않고 적에게서 나를 본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범박  
하게 말하면 적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주인공이 참전하고 있는 월남전은 베트남군, 미군, 주인공이 속해 있는 한  
국군과 베트남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나'의 적은 없다. 베트남군,  
미군, 한국군, 소위 아군들 끼리의 관계에도 공동의 적을 향한 연대감이 별로  
없다. 그 적을 결정하는 것은 명령이고 나는 명령을 지키는 군인이므로 그에  
따른다는 것 뿐이다. 죽음을 서로 겨누는 절박한 관계지만, 그 적의 정체라는  
것은 유령회사와 같다. 근원을 모르는 싸움의 하수인일 뿐이라는 점에서 같은  
편 끼리의 연대감 보다 오히려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적과의 연대감이다. 소  
모품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가당치도 않은 전쟁의 이유와 그 근원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으로 설정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은 우선은 동료를 죽였다는데서 오는  
적대감과 살의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 너머까지 본다는 데에 이 소설의 의미  
가 있다.

분노와, 증오와, 자존심과, 사랑—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마땅히 지니  
고 있어야 할 그들은 끝없고 가혹한 전쟁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기기 힘든 싸  
움에서 그들대로의 공식을 발견하여 절망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인내심으로  
싸운다...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되는 일기 수첩에는 나무와, 보름달과,

예쁜 여자와, 구름과, 산 따위 그림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나무 밑에 앉아 그런 그림을 그렸으리라.(210, 211)

‘베트콩’에서 ‘월남인’으로 명명이 바뀌면서 연민으로의 의미전환을 드러낸다. 아내와 두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에서 그의 이상과 인생을 생각하고 인간으로서의 애정을 느낀다. 그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과정과 결과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한 편으로 묶는 것은 인간이라는 애달픈 조건에 대한 연민이다. 거대한 우주에 비해 너무도 보잘 것 없는 벌레들. 얼마만큼씩 사라져 가도 표시가 나지 않는 왜소한 존재. 그 존재들 끼리의 싸움 자체가 우선 우습고, 그 우스운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는 능력을 다 바쳐야 하는, 인간 힘을 쓰야 하는 것이 애달픈 노릇이다.<sup>15)</sup>

이것은 아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죽음의 터전에서 나누는 사랑’, ‘사랑보다도 깊고 커다란 경험’을 나누는 동료로서의 애정이다. 아군 적군이라는 정치적 의미 이전에, 미군, 한국군, 베트콩, 베트남, 비겁한 놈, 용감한 놈 할 것 없이 다같이 불쌍하고 모래알 보다 작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도리 외에는 아무 길도 없는 그런 사랑 말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이지만, 그 순간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골몰한다. 그는 이미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기보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이기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땅 밑 바위틈 어둠 속에서 죽은 자는 어쩌면 베트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장 잔인하고 동물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했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격을 상실한 셈이었다. 그 행위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건반사였다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았다.(173)

15) 송승철은 이를 실존주의적 합리화로 설명한다.(앞의 글, 85면) 그러나 이것은 실존주의적 합리화라기보다는 그 결론적 명제인 연대성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 3) 비인격적 존재와의 연대

전후 실존주의자들의 작품에도 연대성은 드러난다.<sup>16)</sup> 그러나 이 때의 연대성은 같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안정효 소설에서는 타사물에게로 그 연대성이 확대된다. 1) 2) 항에서 살펴본 인간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물들에게로도 확산된다. 이는 생명은 연대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세계와 자신을 같은 것대로 이해하는 정신이다. 예를 들면, 붕어는 장미이고 우주이며 또 나라는 인식이다.

주인공이 생각하는 삶의 내용을 보자.

해리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남자는 먹기, 텔레비전 보기, 집 손질, 라디오 듣기, 집에서의 음악 감상, 독서, 등산이나 낚시 따위의 야외활동, 섹스, 사교 활동, 스포츠, 취미생활, 부업, 낮잠, 교회나 단체 활동,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여행의 순서이고 여자는 먹기, 독서, 음악감상, 텔레비전 보기, 라디오 듣기, 집 손질, 교회나 단체활동, 사교생활, 섹스, 취미, 스포츠, 부업, 학업의 계속, 여행, 야외활동의 순서라고 했다.(219)

그가 보는 인생이란 거대한 어떤 목표, 존엄성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잘한 것의 조합이다. 위에서 열거한 함수들을 적절히 배열한 조합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거대한 목표가 없다는 사실은 허무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똑같이 자잘한 조합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물들을 발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인생을 보는 이런 시각은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은 감정을 전기 작용으로 인식한다. 감정은 인간의 심장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어 진실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기작용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어디 있는가? 두뇌에? 클리브 백스트 박사가 거짓말 탐지기로 식물의 감정을 추적했더니 식물도 죽음과 위협을 감지했다. 무우가 보는 앞에서 다른 무우를 칼로 덩석 잘랐더니 오실로그래프의 바늘이 펄쩍 튀었다.(222)

16) 실존주의를 표방하는 소설 중에는 연대성의 인식으로 결말지워지는 작품들이 많다. 까뮈의 페스트, 그의 앙드레 말로의 작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실존주의 소설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은 뚜렷이 나타나 연대성까지 나아간 작품은 드물다. 그러나 안정효 소설은 이 연대성의 인식이 타사물에게까지 확산된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감정, 인간성 부재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전기작용의 소지자-즉 사물들에게로 인식이 확산되며, 생명의 연대로 연결된다. 무우, 식물 역시 똑같은 전기 작용의 소지자라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부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타 사물들간의 연대성을 발견하게 된다.

죽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죽음은 삶의 완결 폐쇄 혹은 종결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그는 이것을 삶의 릴레이, 물리적인 윤회로 표현한다.

그러나 생명의 개체들은 죽음의 현상을 거쳐 다른 합성물이 된다. 하지만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죽은 봉어를 마당의 장미나 작약이나 라일락이나 대추나무나 단풍나무 밑에 묻어주면 봉어는 그 식물이 흡수하여가 나를 찾아오는 장미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가을에 내가 따 먹는 대추가 되기도 한다. 봉어는 대추나무요 대추는 나. 이 세상 만물은 하나이다. 죽음과 태어남은 하나의 커다란 순환을 연결하는 무수히 많은 고리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어도 결국 모두 다시 살아난다가 지구, 우주는 서로 주고 받으며 나뉘 가지고 살아가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222, 223)

전쟁을 치루고 난 뒤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전쟁이라는 이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비인간적인 메카니즘을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그 반동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이 짙은 농도로 대두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삶의 문제가 보다 날카롭게 부각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양식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게도 되는 것이다.<sup>17)</sup> 무수한 부조리와 죽음을 목도한 뒤의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이다. 안정효 소설의 세계는 전쟁은 이런 소멸적인 단애<sup>18)</sup>로 빠져들지 않으며 우주와의 연대성으로 확산된다. 이 인식은 현실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관념의 소산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죽는 사람을 보면서, 직장에서 밀려

17) 천이두, 앞의 글, 188면

18) 김성환을 비롯한 전후 실존주의 소설은 대개 허무, 소멸 등의 개념으로 인간사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사멸로 이르는 흐름 속에서 간단없이 떠내려 가는 자기를 의식하였다. 다른 만물은 이 생의 흐름이 끝나는 마지막 선에서 사의 단애로 굴러 떨어지게 마련이었으나,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시체로 피동적으로, 동등 떠내려 가면서 바위에 부딪고, 물속에 빠져갈수록 상처만 더 하여 가는 존재였다. (김성환, 「방황」)

나면서,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달한 인식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더욱 커진다.

#### 4. 마무리

본고는 전쟁과 일상을 연속성으로 인식하여 삶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얀 전쟁』의 특이성은 전쟁과 일상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데에 있다. 바로 여기서 전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읽게 된다. 일상에서 분리된 특수한 사건이 아닌, 연속성의 원리로 전쟁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쟁을 고발함과 동시에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의 부조리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서사구조 역시, 전쟁 전후사와 전쟁을 1장씩 교체해서 서술함으로써 전쟁과 일상을 비교해 놓았다.

본고는 전쟁과 함께 일상의 진단과 처방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질적으로 전쟁은 일상과 동일시되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을 보는 시각으로 일상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그만큼 투쟁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전쟁과 일상은 부정의 논리라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혹은 생명의 의미상실이다. 생명은 해체, 합성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운명, 혹은 체제의 꼭두각시로 이용되므로 그 주체는 상실된다. 셋째, 전쟁이든, 일상이든 무한과 대조되는 유한한 사건에 속하며, 넷째, 모순된 세계 속의 작은 모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하얀 전쟁』은 이런 부정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정적 인식은 그 폭만큼 넓은 긍정으로 회귀한다. 이를 기법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기법적인 것으로는 과거와 현재, 주인공과 부인물, 주사건과 에피소드에 대한 균등한 거리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작가의 관심은 단일인물의 단일사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드러내어 삶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내용적인 측면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작품에서 드러난 휴머니즘의 양상은 역설적이다. 살인이나 그에 유사한 행동에도 손상되지 않으며, 회생이나 이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에서 역설적 휴머니즘이라 설정해 보았다.

둘째, 적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시로의 전화이다. 적을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일시가 가능한 인간으로 판단함으로써, 적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고 연대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이런 연대성의 발견은 적과의 동일시에 그치지 않고 타사물들에게로 확산된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이나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는 허무,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똑같이 유한한 다른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리하여 삶과 죽음, 인간과 타사물들간에는 연대성의 띠가 둘러지는 것이다.

『하얀 전쟁』의 한계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성의 결여이다. 전쟁을 인간사의 본질과 연결시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나, 월남전의 특수성, 그 부조리한 현상 외에 그 부조리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개인의 삶을 충실히 묘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역사와 리얼리티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원인 규명에 소홀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존주의적 상상력과 함께 사회학적 상상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그가 도달한 사랑의 인식이 현실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은 결말지워진다는 점이다. 서로 증오하도록 운명지워진 적에 대한 동일시와 비인격적 존재, 즉 사물들간의 연대의식과 같은 감각이 현재의 살아 있는 이웃, 가족, 동료들에게로 연결되지 않는다. 전쟁과 일상, 즉 인간사에서 부정적 의식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설명되나, 극적으로 회귀한 긍정적 성격의 표현에는 추상적이고 인색하다는 것이다.

『하얀 전쟁』은 안정효의 초기 작품이다. 요즈음 발표되는 작품들—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악부전』, 『힐리우드 키드의 생애』, 『학포 장터의 두 거지』 등에서는 점점 긍정적 내포의 구체성이 넓혀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부, 즉 나쁜 아버지, 사기관, 허영꾼, 거지, 괴팍한 식모 등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향점은 인간 이해에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하얀 전쟁』의 긍정적 회귀 역시 이렇게 인간화될 때, 비로소 소설은 구체성을 가진 사랑의 미학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